

실질임금 다시マイ너스...2.6% 감소

3월 임금 1.6% 늘었으나 실질임금은↓

4월 종사자 37만명 ↑...증가폭은 다소 축소

고율가 여파를 딛고 11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근로자 실질임금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올해 4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세전)은 389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383만7000원)보다 6만원(1.6%) 증가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 근로자가 413만원으로 8만원(2.0%), 임시·일용직은 176만8000원으로 2만 3000원(1.3%) 각각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

업체가 347만5000원으로 4만9000원(1.4%), 300인 이상은 596만3000원으로 5만2000원(0.9%) 늘었다.

그러나 물가 수준을 반영한 3월 실질임금은 352만5000원으로, 전년 동월(361만8000원)보다 9만3000원(2.6%) 감소했다. 통장에 찍힌 월급은 6만원 늘었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월급은 오히려 9만원 넘게 줄었다는 얘기다.

특히 고율가 여파에 지난해 4월(-2.0%)부터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오던 실질임금은 지난 2월 0.7% 상승하며 11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는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를 기록하며 소폭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5.2%→2월 4.8%→3월 4.2%→4월 3.7% 까지 내려왔다. 올해 1~3월 누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7%다.

여기에 임금 상승률(1.6%)이 2020년 10월(0.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것도 실질임금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여기에서 물가 상승률(1.6%)이 2020년 10월(0.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것도 실질임금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한편 올해 4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78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1940만9000명)보다 37만4000명(1.9%) 증가했다. 이는 2021년 3월 이후 26개월 연속 증가세다.

다만 올해 들어 40만 명대를 유지하던 증가폭은 30만 명대로 내려오며 다소 축소됐다.

산업별로는 국내 산업의 중주인 제조업이 4만4000명 증가하며 23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숙박·음식 종사자는 9만4000명 늘어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28만 8000명(1.8%), 임시·일용직이 8만 8000명(4.7%) 증가했다. 반면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포함된 기타 종사자는 2000명(0.2%) 감소했다.

/뉴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추경예산안 의결 등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임시회를 개최해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산안을 각각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황금산단 공공폐수 설치사업 국고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기정예산 1841억원 대비 2억3천만원이 감소한 1838억원(일반회계 435억, 특별회계 1403억)이다. 해룡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웨방화벽 구입비 등을 신규 편성했으며, 노후 공용차량 불용에 따른 매각대금 등을 증액했다.

최병웅 조합회의 의장(여수 출신 전남도의원)은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민에게 널리 도움이 될 기업을 장기적인 시각으로 선별해 유치할 것"을 당부했다.

한수경 위원(순천 출신 전남도의원)은 "향후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의 동의가 우선이며, 사전에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한 후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임형석 위원(광양 출신 전남도의원)은 "본예산 수립 시부터 사전에 재정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경 예산 편성 시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체계적인 재정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상랑 광양만권경제청장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현안에 대해 지역민들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전남개발공사, 여수죽림1지구 토지 '최고가 낙찰방식' 공급

전남개발공사가 여수죽림1지구 내 투자기자 가 높은 용지를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공급한다.

지난달 31일 공사에 따르면 공급대상 토지는 여수죽림1지구 중심에 위치한 준주거시설용지 22필지(1만467㎡)다.

해당 용지는 향후 공급 예정인 상업용지와 접해 있다.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용지가 둘러싸고 있어서 소비수요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근거리엔 초등학교와 중학교 위치하고 있어 학원 등 교육관련 시설 입지로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은 오는 6월 19일부터 20일 까지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를 통해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마트, 6월 2일부터 3일간 상반기 고객감사 세일 개최 5월 31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이마트 2023년 상반기 고객감사 세일을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는 오는 6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신선, 델리, 가공 생활용품 등 구매빈도가 높은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2023년 상반기 고객감사 세일을 개최한다.

/뉴스

광주은행, 서민·소상공인·중기 1조2250억원 '상생금융' 지원

햇살론뱅크 3천억·주택담보대출 1500억·특별자금 5500억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 31일 595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 종합지원, 63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총 1조 2250억원의 상생금융 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은행 지원 내용은 ▲햇살론뱅크 3000억원 ▲주택담보대출 1500억원 ▲최저신용자 지원 1000억원 ▲새희망홀씨 450억원 등 서민금융 지원과 ▲특별자금지원 5500억원 ▲증재단 출연을 통한 800억원 자금지

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역 동반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별자금지원'을 하는데 지역 소재 중소기업 대상으로 최대 1% 금리 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저신용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특화 대출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민금융 지원 햇살론뱅크 지원 규모를 지난해 244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으로 12배 이상 확대

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최약차주 가계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포용금융 특별대출 금리 우대(최대 2%)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최대 1% 금리 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저신용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특화 대출(최대 1%)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650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 종합지원, 35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총 1조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계획을 발표했다.

/권현안 기자

한국광기술원, 진단·진료 동시 가능한 반려동물용 검이경 개발



한국광기술원은 주원어스테크놀로지와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법인 주코어스테크를 통해 반려동물의 귀내부 관찰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치료용 광원 삽입형 반려동물용 검이경(檢耳鏡)'을 개발했다고 지난달

검이경 기술 기반 인간·만성염증·통증 치료까지 확장 예정

31일 밝혔다.

한국광기술원 광바이오헬스연구센터에서 개발에 성공한 이 제품은 기존 제품에 비해 치료용 레이저 및 광 전송을 위한 소형 광학계를 추가해 소형 반려동물의 귓병 발생 여부를 청진과 치료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제품은 특히 소형 반려동물에게 허리 발생하는 귓병의 발생 여부를 가정에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겸할 수도 있어 반려동물의 의료 기술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연구센터 측은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 모니터링 솔루션과 맞춤형 건강진단 및 치료방법 제시가 가능한 원격 펫 셀프 케어 서비스 등의 다양한 분야와 융합할 수 있어 앞으로 관

련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개발은 천안시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광기술원은 광원 및 카메라 제어 기술을 주고 어스테크에 이전해 제품의 사업화에도 힘쓰고 있다.

신인희 한국광기술원 광바이오헬스연구센터장은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반려동물용 검이경 기술을 기반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내시경 기술을 결합해 인간의 만성염증 및 통증 치료까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상"이라며 "한국광기술원은 광바이오헬스 전문생산 기술연구원으로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혁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현안 기자

4월 광주 생산·소비·건설 모두 부진

광공업 생산 전년대비 0.9%↓·전월대비 3.7% 감소

지난 4월 광주 생산과 소비, 건설 수주가 모두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4월 광주전남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9%, 전월대비 3.7% 각각 감소했다.

업종별로 자동차(27.3%), 금속가공(17.8%), 의료정밀기기(12.1%) 등은 증가했으나 전기장비(-26.0%), 고무·플라스틱(-11.1%), 담배(-10.9%) 등에서 감소했다.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1.4% 증가, 전월대비 6.0% 감소했다.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68.2% 감소했다.

/권현안 기자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신청기업 모집

광주시, 중소기업 대상 6월 12~14일 접수…15개사 선정

광주시는 지역 민간사업장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 강화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2023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신청기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소를 둔 상소기업이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고위험 3대 업종 기업 등은 우대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4일 까지다.

광주시는 산업재해 발생현황·산재예방 교육 이수·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노동조건 개선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권현안 기자

한전KPS, 광주자립준비청년 인턴 채용

한전KDN 이어 광주시 구축 사회적 지지체계 결실

광주시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이동)을 위해 구축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또 한 번의 결실을 맺었다.

광주시는 한전KPS(주)가 시에서 추천한 지역 자립준비청년 5명 전원을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월 한전KDN(주)이 5명을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한 데 이어 두 번째 성과이다.

이들은 1일부터 3개월간 나주시에 위치한 한전KPS(주) 본사 계약종합부 등 5개 부서에서 근무하게 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돋기 위해 지난해 6월 설치한 '광주자립지원단'의 인력을 기준 7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자립교육과 심리치료 지원, 핫라인 상담창구 개설, 취업정보 등 맞춤형 플랫폼 구축, 취업 교육 및 대학교재비 지원, 바람개비 서포터즈 멘토링 지원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린이재단 광주전역본부와 월드비전 광주전남본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변호사협회·한국자산관리공사광주본부, 대안적십자사 광주본부 등 11개 기관에서 총 5억여 원의 현금과 현물을 지원했다.

광주시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지원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6월부터 자립지원협의체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한전KPS(주)를 비롯해 지난해 9월 함께 협약을 맺은 10개 유관기관과 주기적인 연대와 소통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권현안 기자

디케이, 납품대금 연동제 조기 안착 앞장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 중견기업인 디케이(주)가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가 정식 시행되기 전에 미리 도입하고 실천하는 '동행기업'에 참여해 11개 중소기업 협력사와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시 대기업, 중견기업 등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 서면으로 의무적으로 기재해 수탁 중소기업에 발급하고 그 약정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제도로 오는

/권현안 기자